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1호 HYUNBULNEWS.COM 2026년 3월 25일(음력 2월 7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불교단체들은 3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불교계 "전쟁 멈춰라" 오체투지

조계종 사노위 등 3월 17일
조계사 출발 미대사관까지
평화 염원 목소리 행동으로

"전쟁과 살생을 멈춰라! 무력 충돌을 중단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3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를 위한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이번 오체투지는 격화되는 중동 전쟁 상황 속에서 모든 전쟁과 살생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발원하며 마련됐다.

사노위 스님들과 불교단체들은 이날 조계사 앞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한 뒤 광화문 방향으로 몸을 낮춰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고 온몸을 땅에 완전히 엎드린 뒤 다시 일어나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거리를 이동하며 평화를 기원했다.

출발에 앞서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 중동 전체가 아비규환의 상황"이라며 "2026년 인류가 사는 지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폭격을 멈추고 이란 역시 맞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몽 스님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군함 파견 요청을 거둬들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는 마치 입으로 불을 뿜는 용의 아가리로 들어가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계사를 출발해 종각을 지나 주한미국대사관까지 오체투지를 이어 가며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했다. 글 · 사진=임은호 기자

조계종 출가종책 성과…올해 본사 역량 결집

소년출가 · 출가학교 등 효과↑
'전(前)출가 인큐베이팅' 운영
10 · 20대 비중 40%…거점 구축
"지속가능한 출가 양성 시스템"

여수령 · 임은호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해 온 출가장려 종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소년출가제도와 단기출가학교, 종립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젊은층 출가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출가학교 확대 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출가자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장면은 3월 18일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제7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이었다. 이날 회향식에서 소년출가자인 18세 고등학생 태열 사미가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진우 스님은 회향식에 직접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총무원장이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에 참석한 것은 종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가자 양성에 대한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앞으로 종단의 대중 모두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출가자 양성에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조계종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미·사미니계 수계자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율은 최근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수계자 중 10·20대는 2023년 23명(사미 18·사미니 5), 2024년 34명(사미 26·사미니 8), 2025년 42명(사미 39·사미니 3)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소년출가자 증가는 출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출가 인재 발굴 프로그램 '선연(善緣)'이 대표적인 사례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 명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교적 삶을 체험하도록 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7명의 소년 출가자가 배출됐다. 직접적으로 출가를 권유하기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험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방식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 태열 사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단기출가학교 역시 출가 인연 확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월 17일 열린 제1차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덕사와 선운사, 진관사 등에서 운영된 단기출가학교에는 총 33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6~7명이 출가 확정 또는 예정·희망자로 분류돼 잠재 출가 전환율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운사 프로그램에서는 참가자의 36%가 출가 의지를 밝히는 등 높은 전환 가능성을 보였다. 포교부는 단기출가학교가 기존 홍보 중심의 출가 권유 방식보다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계종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출가체험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사찰에 더해 동화사, 운문사, 신흥사, 범어사, 통도사 등으로 확대해 전국 5대 권역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한 출가 거점 체계를 형성한다는 게 조계종의 구상이다.

아울러 월정사, 봉녕사, 붓다선원 등과 협력해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체험자 통합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가 상담과 멘토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전(前)출가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출가자 증대는 특정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종단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청년수행캠프, 은퇴자 대상 설명회, 사찰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출가 장려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 고

4월 1일부터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오는 4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구독료 인상은 2002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1994년 창간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기치로 불교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과 함께 신문 원자재 가격, 인쇄비, 우편 발송료 등이 크게 올라 신문 제작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24년간 구독료 인상 없이 비용 절감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 제작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현재의 구독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구독료 현실화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은 신문의 품격을 높이고 불교계 소식을 충실히 전하는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언론 포교사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니까야로 읽는 대승기신론
니까야와 인지과학으로 기신론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각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
주 관 사단법인 붓다나라
강사 소개 중각 스님(이중표 박사)
사단법인 붓다나라 이사장, 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 범한철학회 회장 역임
『불경』,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붓다의 철학』,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불교와 양자역학』 등 다수의 저·역서
16주 과정 4월 14일 (화) 시작
신청 마감 2026년 4월 12일 (일)
장 소 붓다나라 서울법당 (동대입구역 5분거리)
(서울 중구 동호로25길 26, 플로렌스빌딩 201-1호)
중각 스님(이중표 박사)
모 집 반
1. 스님반 (화요일 오후 2~4시)
2. 저녁반 (수요일 오후 7시 반 ~ 9시 반)
3. 오후반 (목요일 오후 2~4시)
※ 수강인원이 적은 반은 개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법당(화상채팅프로그램 줌으로 동참)의 경우 장소가 달라지며, 밑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 : www.buddhanara.or.kr/mahayana
붓다나라 정기법회
사단법인 붓다나라에서는 안거 기간인 2, 8월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오전 10~12시에 서울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 붓다나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www.buddhanara.or.kr
전화 및 문자 010-3003-4108
buddhanara 붓다나라